



학도넷

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

발행 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 | 발행일 2018년 9월 15일 | 총권 46호 | 주소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다락골길 164-24 | 전화 02-720-7259 팩스 02-720-7259 | 이메일 hakdonet@hanmail.net | 편집 학도넷사무처 | 디자인 인디자인

학교 도서관을 여는 글

세상은 천천히 변한다지만 그래도 도서관 이용자시대

학교도서관, 그리고 작은도서관은 대부분 1인 사서로 운영하기 때문에 다양한 독서행사를 펼쳐야 할 상황이 되면 고양이 손이라도 빌려 써야 할 형편이다. 이때 도서관이용자는 훌륭한 동반자다. 적극적으로 지지해주는 도서관활동가가 존재하는 도서관이라면 사서랑 의 기투합하여 풍성하게 진화하는 도서관으로 나아갈 수 있다. 처음에는 누구나 도서관 이용자이다. 사서도 처음에는 이용자였다. 동네에서 만나는 이웃도 잠재적인 도서관이용자다. 그들이 성장하면 건강한 시민이 되고 도서관활동가가 되어 지역의 문화를 가꾼다.

처음부터 계획을 세워가며 도서관이용자가 활동가로 성장한 것은 아니다. 책을 좋아해서 도서관을 드나드는 이용자가 되었고, 도서관이 책과 사람을 만나게 해주고 사람과 사람이 이어 주었다. 도서관이용자들이 자주 만나다 보니 동아리를 만들어서 함께 읽기를 한다. 건강한 흥미를 일으키는 책읽기는 사소한 것도 다시 보게 되고 관심두지 못했던 주변에도 눈을 돌리게 한다. 그리고 나를 의식하게 되며 불편한 의식이 짝뜨게 된다. 그래서 책을 읽으면 세상의 진실에 눈 뜨게 되고 세상에 질문을 던지게 된다. '지금 이대로 살아도 괜찮은 걸까?' 그러면서 생활 속에 자리 잡은 편견을 깨고 함께 성장하는 건강한 시민, 도서관이용자가 된다. 이쯤 되면 도서관운동가라는 이름을 붙여줘야 한다.

이제는, 도서관 이용자시대

사회의 변화속도가 빛보다 빠른 지금, '모든 정보가 공중에서 흩뿌려지는'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함께 읽기'다. 함께 책을 읽으면 사유의 확일성이 깨지고 생각과 생각이 쌓여서 다양하고 깊이 있는 철학이 만들어지고 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건강한 시민이 된다. 이 건강한 시민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다.

그런데 몇 해 전부터 나는 건강한 시민 도서관이용자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도서관에서 만나는 수 백 개의 프로그램들에 수강신청을 하고 배우고 돌아가는데 많은 강좌에서 배운 것들을 꿀꺽꿀꺽 삼키며 늘 신박한 새로운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길 기다린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인가 기능적인 것만 선호하는 모습을 발견했다. 작가와의 만남에서도 작가님이 작가의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 책이야기를 나누는 것보다 독후 활동 내용을 가져와야 하고 체험활동을 더 우선시하는 모습은 이용자가 소비자라 된 듯하여 안타까웠다. 그렇게 문화소비자만 남아있는 도서관의 미래가 걱정스러워졌다. 도서관은 이용자 추억의 지분을 공유하여야 책임 지분도 나눌 수 있다. 이용자가 문화소비자로 전락하는 순간 도서관은 철학을 보여주는 강좌를 만들어 내지 못하고 도서관 본연의 모습인 책에 집중하기보다는 문화 공연에 더 많은 세금을 쏟아붓는 도서관들을 씩씩하게 바라봐야 한다. 지금은 이용자 시대다. 도서관을 도서관답게 만드는 것은 도서관 이용자이다.

며칠 전 여강고교 독서동아리 '꿈집'이 '책방'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다양한 연령대 시민들이 청소년들과 『82년생 김지영』을 읽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었다. 처음에 자기소개는 「○○년생 ○○○입니다.」로 시작하여 간단하게 서로 인사하고 바로 책이야기를 나누었다. 청소년들은 70살을 넘은 어르신과 책이야기를 나누며 새로운 경험을 했고 시민들은 서로 다른 삶을 살아온 이웃과 책이야기를 통해 내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소감 나누는 시간에 나왔던 이야기들 중 44년생 최영섭 어르신의 이야기가 오래 기억에 남는다. "변화는 서서히 오더군요. 빠른 변화를 기대하지만 세상은 천천히 변해요." 당신이 사셨던 세상과 지금을 비교해보면 참 많이 달라졌지만 사는 동안에는 변화가 더디다는 생각을 하셨다고 한다.

세상은 서서히 변하고 있다. 도서관의 환경도 변하고 있다. 도서관의 서비스도 변하고 있다. 이용자도 변하고 있다. 변하지 않는 것은 도서관에서는 책읽기가 기본이고 책읽기를 통하여 이용자는 성장한다는 것이다. 지자체에서는 시민을 위한 도서관 정책을 만들어 내고 건강한 시민이 건강한 도서관을 만들어 낼 때 '이제는, 도서관 이용자시대'라고 말할 수 있다.

김동현 | 토닥토닥도서관운영자/학도넷 운영진

차례

01_ 학교 도서관을 여는 글

02_ 2018 학도넷 도서관이용자 이야기대회
- 공모 선정작

03_ 2018 학도넷 도서관이용자 이야기대회
- 공모 선정작

04_ 2018 학도넷 도서관이용자 이야기대회
- 공모 선정작

05_ 2018 학도넷 도서관이용자 이야기대회
- 공모 선정작

06_ 내가 원하는 이야기

07_ 새내기 사서교사 분투기

08_ 학도넷 소식

학도넷은 학교도서관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 또는 사서교사, 학부모, 학생, 문헌정보과 교수, 출판인 등 도서관과 독서교육에 관심있는 모든 분들이 함께 하는 연대모임입니다. 학도넷 운동은 평등교육과 문화운동의 시작입니다.

학도넷소식지는 학도넷 운동의 일환으로 도서관과 독서운동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학도넷 회원(준회원 이상)님들께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회원으로 등록하실 분은 학도넷 홈페이지를 이용해주시시오. www.hakdo.net

학교 도서관을 풍성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원고를 기다립니다. 원고 보낼 곳 : hakdonet@hanmail.net

2018 학도넷 '도서관이용자 이야기 대회' 공모 선정작

두루 누림상

학교도서관의 파수꾼

- 송명원(경북 봉화 소천초등학교 교사)

도서관 업무를 맡은 지도 이십 년이 되어간다. 첫 발령을 받은 다음 해부터 학교도서관 업무를 맡았으니 교직 생활의 대부분을 학교도서관과 함께했다. 신경 써야 할 부분은 많은 반면에 일에 대한 보상이 거의 없는 도서관 업무는 선생님들이 선호하지 않는 업무 중 하나이지만, 하고 싶었다. 그냥 하고 싶었고, 그냥 좋았다.

아침에 출근해서 도서관 문을 열었을 때의 책 냄새가 좋았고, 책 읽는 아이들의 모습이 좋았다. 도서관에서 장난치는 아이들도 좋았고, 똑바로 꺾혀있지 않고 삐딱하게 튀어나온 책을 바라보는 것도 좋았다. 그런 책을 제자리에 꽂고 있는 내 모습은 더 좋았다. 정리를 마친 도서관의 문을 닫고 퇴근할 때는 개운한 기분이 들었다. 그렇다고 내가 사서교사는 아니다. 초등교사다. 한마디 더 붙이자면 책을 좋아하는 초등교사다.

어릴 적 도서관을 다닌 기억은 없다. 내가 자랄 때만 해도 도서관이 흔치 않았다. 더군다나 시골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으니 책을 읽기보다는 산과 들을 뛰어다니며 놀았던 기억밖에 없다.

초등학교 3학년 때 대구로 전학을 갔다. 대구에 있는 큰 학교였지만 학교도서관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았다. 하지만 시골학교와는 달리 반 아이들이 한 권씩 모아서 만든 학급문고가 교실 한쪽에 있었다. 자습 시간에 책을 한 권 읽게 되었는데, 그 책이 너무 재미있는 것이었다. 눈을 땔 수가 없었다. 책장을 덮으면 다음 내용이 궁금해서 쉬는 시간이 되자마자 책을 펼쳤다.

책 읽는 속도가 빠른 편이 아니어서 책을 다 읽는 데는 이틀이 걸렸지만, 마지막 책장을 덮고 난 후 가슴이 벅차올랐던 기억이 있다. 학급문고에서 또 다른 책을 골라서 읽었다. 역시나 재미있었다. '어떻게 내 생각을 이렇게까지 알고 썼을까?' 감탄하면서 책 속에 퐁당 빠져 지냈다.

책의 재미를 한번 느껴보니 그 재미란 것이 또 다른 재미를 계속 찾게 되었다. 읽고 또 읽었다. 머릿속에 그려지는 책 속 세상은 그야말로 신비와 재미로 가득한 세상이었다. 그 속에서 나는 어린 시절을 보냈고, 조금씩 자랐다.

아이들에게 책의 재미를 알게 해주고 싶었다. 전교생 40명이 채 되지 않는 산골 작은 학교의 모든 아이들에게 그들만의 책 한 권을 만나게 해주고 싶었다. 단혀 있던 학교도서관 문을 활짝 열고 아이들을 맞이했다. "도서관에서는 조용히 해야 한다." "책 읽어라"는 말은 많이 하지 않았다. 아이들이 도서관을 내 방처럼, 내 교실처럼 느낄 수 있도록 편안하게 이용하도록 했다. 기본적인 규칙과 예절만 지켜주면 도서관을 놀이터처럼 사용해도 웃어주었다. 그런 가운데서도 아이들이 책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작가와 만남', '학교도서관 축제', '달빛 도서관 운영', '문학 기행' 등 몇 가지 행사를 꾸준히 진행하였다. "선생님, 책 뭐 읽을까요?", "이 책 재미있던데요." 아이들의 말 한마디가 나를 웃게 했고, 오랜 시간 지치지 않고 도서관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었다.

왜 이렇게 책이 좋을까? 도서관이 좋을까? 나도 잘 모르겠다. 그냥 좋다. 책 읽는 아이들의 모습이 좋고, 책 읽으며 웃는 아이들의 모습은 더 좋다. 이러니 앞으로 나는 학교도서관 일을 계속 할 것 같다. 도서관 문을 열고, 책을 정리하고, 아이들을 맞이하고…… 학교도서관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는 것은 어떻게? 어릴 때 재미있게 읽은 책 한 권이 지금의 나를 만든 것처럼 아이들 한명 한명이 그들만의 책 한권을 꼭 만났으면 하는 소박한 꿈 하나를 가져본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도서관 문을 활짝 연다.

두루 누림상

나의 말하기 선생님, 도서관 사서님

- 김수진(대구대학교 문헌정보학과 3학년)

내 나이 때는 생일이 빠르면 1년 일찍 학교에 들어갈 수 있었나 보다. 출생일이 2월인 나는 입학 첫날에 친구들과 선생님 앞에서 할 자기소개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설렘도 잠시, 어머니는 아버지와 내가 모를 상의를 나누고 나의 설렘 가득한 입학식은 1년이 지나서야 맞이할 수 있었다.

학교를 다니지 않을 때의 일이다. 엄마와 시장에 장을 보러 같이 간 날이었는데, 거기서 엄마의 친구 분(이모)과 내 또래의 아이를 만났다. 나는 이모께 인사를 드리고 그 후에 아이에게도 인사를 했다. 그 아이가 나에게 "나이가 몇 살이야?", "너는 뭘 좋아해?" 등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고 나는 그 질문에 꼬박꼬박 대답을 하였다. 하지만 그 아이의 반응은 내 대답을 전혀 이해 못하겠다는 표정을 지었다. 끝내 말하기를, "뭐라고 하는지 못 알아들었어."

그 자리에서 부끄러움을 느낀 나는 얼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고 빨리 여기서 떠나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괜히 빨리 집에 가고 싶다며 어머니를 보챘다. 어머니도 그 아이가 한 말을 듣고 많이 당황스러우셨을 것이다. 집에 도착하고 나는 그날 하루는 말도 하지 않았고 그저 고개를 끄덕이거나 젓는 행동으로 내 의사를 표현했다. 말을 하기가 부끄러웠다. 또 그 아이가 했던 말처럼 내 말을 '못 알아들었다'고 누군가 생각하거나 말할까봐 부끄럽고 무서웠다. 어머니와 아버지도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았을까하는 우울함도 찾아왔었다. 나는 혼자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다. '나는 한글도 쓸 줄 알고, 글도 읽을 줄 아는데 왜 내 말을 못 알아듣는 걸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TV에서 하하호호 웃고 있는 아이들이 나왔다. 나는 잠시 TV에 집중을 했는데 거기서 내가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알게 되었다. 그 아이들이 말하는 것과 내가 말하는 것에 차이가 있었는데, 나는 말을 하는 것에 매우 어눌했었다. 이것이 초등학교 입학의 미루게 된 이유였던 것이다.

나에 대해 몰랐던 사실을 깨닫게 되자 '이렇게 있다가는 영영 학교도 못 갈 거야! 세상 사람들이 내 말을 못 알아듣게 되는 건 싫어!' 하고 나는 나에게 숙제를



내주었다. 그것은 바로 집 안에 있는 전래동화책을 하루에 세 권씩 소리 내어 읽기로 한 것이다. 그렇게 나는 나 스스로 다짐한 것을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숙제는 오래가지 못했다. 책을 같은 것만 계속해서 읽어다니 나는 이미 이 책의 내용을 완전히 알게 되어 재미가 없어진 것이다.

하루는 부모님의 심부름을 맡게 되어 채소가게를 다녀오는 길에 나는 책을 한 아름 들고 가는 아주머니를 보았다. '도대체 저 책들은 어디서 가져오시는 걸까?' 겁도 없는 나는 그 아주머니께 "그 책들은 뭐예요?" 하고 물어보았다. 아주머니는 웃으면서 "공원 옆에 있는 도서관에서 가져온 책이란다." 하고 대답하셨다. 아줌마는 나와서 눈높이를 맞추면서 가지고 있는 책들을 하나하나씩 보여주셨다. 그 책들 중에는 알록달록한 책도 있었고 새카맣고 무서운 느낌의 책도 있었다. 심지어 제목들도 흥미를 끄는 것들이 많았다. 나는 아주머니께 알려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남기고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께 도서관에 가겠다고 말했다.

도서관을 처음 들어갈 때 '해적들이 발견하는 보물'이란 것이 바로 이런 거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다. 반짝 반짝 빛나는 금이 아닌 책! 게다가 셀 수 없이 많은 책들이 진열되어 있는 것을 보고 나는 서가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읽고 싶은 책을 몇 가지 골라서 구석에서 작은 목소리로 책을 읽기 시작했다. 하지만 혼자서 읽는다고 내 '말하기'는 나아지지 않았다.

글을 어떻게 읽을 줄만 알게 될 뿐, '말하기'는 여전히 어눌하고 변화가 없었다. 그것이 너무 속상해서 울고 있었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내게 다가왔다. 무슨 일이 있었냐며 말을 걸어주셔서 고개를 들자 나는 깜짝 놀랐다. 저번에 나에게 책을 보여주셨던 그 아주머니였기 때문이다.

알고 보니 아주머니는 이 도서관의 사서로 일을 하고 계셨고 단지 담당하고 있는 자료실이 달라서 나는 아주머니를 만나지 못했던 것이다. 아주머니께 "저는 글을 읽을 줄 아는데 말하는 게 이상해요."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아주머니가 "내일부터 수진이의 말하기 선생님이 되어줄게!" 하고 말씀하셨다.

나는 그렇게 매일 매일을 집이 아닌 도서관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았고 나의 말하기 선생님 사서님이 읽을 때의 말투를 따라 하며 내 '말하기'와 사서님의 '말하기'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비교를 해가며 책을 읽었고 마치 내가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책을 읽어갔다. 무엇보다도 부모님께 읽은 책의 내용을 말해주는 것이 너무나도 재미있었다. 그리고 점차 나의 '말하기' 콤플렉스는 나아져 이제는 어눌하지 않고 매끄럽게, 또박또박 말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초등학교 입학을 두 번 맞이하게 된 나는 이런 나에게 큰 변화를 선물해준 사서님께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었으나 내가 모르는 사이에 사서님은 그 도서관에서 더 이상 근무를 하지 않게 되었다.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기다려봤지만 나의 말하기 선생님은 만날 수가 없었다. 사서님, 저는 사서님 덕분에 다른 친구들과처럼 말을 잘할 수 있게 되었고 이제는 제 말하기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게 되었어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두루 누림상

문화 콘텐츠 도서관을 만들기 위한 작은 밑알 뿌리기

권미란(강남구립 정다운도서관 재능기부자)

2년 전 독일 '슈트트가르트'시립 도서관에 간 적이 있다. 멋진 시설을 갖춘 최첨단 도서관이었다. 멋진 외관도 부러웠지만 '도서관은 책을 빌려주는 곳'이라는 나의 기존 관념을 넘어서 도서관이 그곳 지역민들의 소통의 장이며 다양한 문화 콘텐츠가 존재하는 곳이라는 사실이 더욱 부러웠다. 나는 그때까지만 해도 '도서관은 책을 빌려주는 곳'으로만 알고 있었다.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강남구립 정다운도서관'의 관장님과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나라의 도서관들도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준비해 지역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미술에 대해 관심이 많은 나를 알아보고 우리 동네 도서관에 무언가 도움이 되는 일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시며 나의 손을 잡아주셨다. 우리 두 사람은 의기투합하여 일단 지역 사회를 위하여 재능기부 방식으로 미술수업을 개설해보자고 의견을 모았다. 강의 경험도 있고, 미술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많다고 나를 자부하는 나였지만 무척 긴장되고 흥분되었다. 언젠가 꼭 해보고 싶었던 일이어서 더욱 더 설레었다. 설레임 속에서 강의 계획서를 만들고 강의 내용을 열심히 준비하였고 드디어 첫 수업 날이 다가왔다. 첫 수업에는 수강생 8명이 등록을 했고 강의실도 마땅치 않아 강의하기에는 약간 불편한 어린이 열람실에서 어린이들이 오지 않는 오전 시간에 수업을 시작하였다. 그런데 수강생들의 반응은 기대 이상이었으며 결석생이 거의 없이 3달 동안 10회 수업을 무사히 잘 마쳤다. 수강생들의 반짝이는 눈빛과 열정적인 호응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다. 10시간 수업이 모두 끝나던 종강 날 다음 학기에도 꼭 미술 수업을 개설해달라는 수강생들의 요청이 있었다. 요청에 따라 그 해 가을 학기에도 '각 나라를 대표하는 미술가 10인'이라는 주제로 열정적으로 미술 강의를 한 결과 박수 속에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 그리고 2018년 봄 학기에는 같은 건물을 쓰고 있는 평생교육원의 배려로 넓은 강의실에서 수강생의 수를 40명으로 늘여서 '세계 조각가 10인'이라는 멋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나에게 주어진 귀한 강의 시간을 알찬 수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내가 좋아하는 일에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도 기쁘다. 또한 열심히 필기를 해 가며 경청하시는 연세 많은 분들의 반짝이는 눈빛을 보면 '시작해보기를 참 잘 했구나'라는 생각이 든다.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로 세상을 아주 조금씩 바꾸고 싶다'는 나의 소망대로 많은 수강생들이 '이 수업

덕분에 행복하다'고 또 '삶이 좋게 바뀌었다'는 말씀을 하실 때는 감동과 보람이 느껴졌다.

-중략-

내가 잠시 들렀던 독일 큰 도서관의 문화적 충격이 나에게 '나도 우리 동네 도서관에서 문화콘텐츠를 보급하는 작은 밑알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해주었고 나의 세상 구경이 이렇게 우리 동네 지역민들의 마음을 파고들게 되어 너무 감사하고 함께 동참하여 웃을 수 있어서 참 행복하다.

'정다운 도서관'에 자주 가고 싶어지고 내 마음이 자주 그곳으로 향하는 것은 왜 일까? 나는 오늘도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세계 명작 여행을 하면서 그림 자료를 찾고 강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일까? 열심히 듣고 박수 쳐주는 수강생들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그 분들의 눈빛을 생각하며 다음 시간 주제인 스위스의 조각가 '자코메티'와 만나는 유익하고 행복한 시간을 준비해 본다.

두루 누림상

새벽 3시가 행복했던 그 때

- 함성희(경북 포항시 시인)

마음이 불편할 때면, 난 도서관을 찾았다. 아픈 엄마와 싸운 날, 엄마가 차려준 저녁을 꾸역꾸역 먹고 도서관을 찾았다. 사랑했지만 나와 다른 생각을 내뱉던 남편이 너무나 낯설었던 신혼의 주말 저녁에도 나는 도서관을 찾았다. 배도 가슴도 채하기만 할 것 같던 그 날, 남편은 또 다른 내가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은 그 날. 도서관은 평소처럼 분주했지만 너무 평온했고 누군가 앉아있던 그 자리가 차갑지 않아서 좋았다. 난 평소 읽다 무심히 차 뒷자리에 던져두었던 소설책을 한 자씩 곹뺏으며 읽어 내려갔다. 차에서 흘러내리던 눈물은 이미 멎었고, 내 몸은 뻘뻘한 그 글자들로 깨끗이 닦이는 느낌이었다. 편안했다. 그 시간이. 지금도 그날의 극적 편안함이 참 고맙다.

내가 그 날 도서관을 향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가장 행복하다고 느꼈던 시절의 기억에 도서관이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난 행복의 기억, 행복의 느낌을 찾으러 도서관을 찾았는지도 모른다.

내가 가장 행복했던 일상의 순간은 중학교 3학년 겨울 방학이었다. 고등학교 입시를 벗어난 흥분분한 휴식의 시간이었고, 난 선행학습 학원 대신 동네 도서관을 처음 가보았다. 사실 도서관이라기보다는 마을문고가 적당한 표현일 것 같다. 그곳은 새마을금고 위층에 동네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는데, 그 한 쪽 벽면 책장에 낡은 세계문학전집이 몇 질 꽂혀있었던 것이 전부였다. 난 학원이나 독서실 대신 그 곳에서 공부해볼까, 라는 생각으로 갔지만 감독하시던 동네 할아버지 의자 뒤에 있던 책장을 더 자주 살펴보았다. 어디선

가 들어본 듯한, 멋있어 보이는 책을 세 권 고르고 장부에 이름을 적었다. 그리고 집에 가져와 밤에 읽기 시작했다.

그때 책을 읽으며 느낀 감정은 뭐라 말로 표현하기 힘들지만, 황홀감에 가깝다. 나와 너무나 다른 세계의 이야기인데, 그 세계가 내 머릿속에 펼쳐지고 있는 것이 신기하고 황홀했다. 당시 읽었던 책은 데미안, 수레바퀴 아래서, 폭풍의 언덕, 제인 에어, 흥당무, 감자, 운수 좋은 날 등이다. 우리 집에는 정글북, 엄지 공주, 신데렐라 수준의 동화책 몇 권을 제외하면 책이 거의 없었다. 가끔 학교에서 아이들이 빌려 온 만화책이나 하이틴소설을 보기는 했지만, 책으로 충격적인 뭔가를 느낀 것은 그 때가 처음이었다.

그래서 밤마다 빌려온 책을 읽었다.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의 책 읽기 가장 좋은 시간이었다. 가족 모두 잠든 시간, 아침 등교의 부담도 없는 방학의 고요한 새벽이 좋았고 그 시간 16살의 내 가슴은 뜨거운 무엇으로 휘몰아치고 있었다. 매일은 못 갔지만 아빠에게 부탁을 하여 며칠에 한 번씩 그 새마을금고 위 마을문고를 갔다. 그 곳은 당시 내가 알고 있는 가장 가까운 도서관이었지만 옆 동네라 차를 타야만 갈 수 있는 곳이기도 했다. 그 넓은 책장 앞에서 책을 고르고, 장부에 책 제목을 적고, 조금은 무서웠던 할아버지께 인사하고 나오던 그 순간, 그리고 그 순간을 함께 한 그 곳의 저녁 형광등 불빛, 냄새, 소리도 아직 생생하다. 빌려온 책을 한 권씩 다 읽고 눈을 감고 잠을 청하는 새벽 3시, 난 정말 행복했다.

요즘 우리 동네에 있는 '해와 달 작은도서관에서 가장 많이 빌리는 책은 '공룡 유치원'이다. 올해 5살이 된 딸이 가장 많이 빌려 본 책이다. 남편과 나의 도서대출증은 딸 책 10권을 빌리는 데에 오롯이 사용되고 있다. 2살이 되어 걸어 다니면서부터 도서관을 다니기 시작한 딸은 동네 작은도서관에 가면 유아 코너로 달려가 좋아하는 그림책을 몇 번이고 꺼내서 읽는다. 그러다 보고 싶었던 책, 또는 새로운 책이 있으면 방긋 웃으며 책을 들고 나를 부른다. 35살 아기 엄마가 되어버린 내게, 16살 새벽 3시의 그 행복은 당분간 없을 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내가 좋아하는 책을 아이도 함께 좋아할 수 있어서, 그리고 좋아하는 공간에서 함께 웃을 수 있음에, 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행복하다.

공부를 썩 잘하지 못하는 우리는 남들이 다하는 도서관에 가려는 것을 잊지 않고 하려고 몇몇 친한 친구끼리 남산도서관에 가기로 약속을 했지요.

그 옛날 도서관은 빨리 가서 자리를 잡고 있어야 들어갈 수 있었어요.

아침 4시에 첫 차를 타고 천호동에서 남산 국립도서관은 차에서 내려 많이 걸어야 했어요.

우린 도서관 앞에서 줄을 서서 문이 열리기를 기다렸지요.

오전 5시가 되었어요. 다행히 순서가 되어 우린 들어갔어요.

남학생도 끼어 있는 우리 일행은 개신장군처럼 신나게 들어가서 책을 펴고 공부할 준비를 하고 실전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모든 것에 일등인 친구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을 본 우리는 정말 사력을 다해 공부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일등하는 친구 자리에서 코 고는 소리가 났어요.

다른 학교 학생들이 몰려 들어 싸울 기세였어요. 우린 쫓겨나다시피 나와서 남산 빵집에 가서 엄청 매운 비빔국수만 먹고 깔깔깔 웃었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도서관에 가지 않았어요.

아마 그 빵집은 티파니였던 거 같아요. 지금도 그 국수는 잊혀지지 않습니다.

요즘은 어떠냐구요??

요즘엔 여주 한글시장 안에 있는 토닥토닥도서관에서 살다시피 합니다.

시장가다 들르고, 친구 만나러 들르고, 그림책 읽으러도 갑니다.

내 삶을 바꾼 그림책 (이정혜)

5월, 봄도 벌써 왔고 분홍과 연두가 마음속에 들어와 앉아있는데 날씨가 세월 따라 변하는 생활의 소품같이 이리도 변덕을 부릴까? 꼭 나 같다. 자기 맘대로 이고... 오늘은 조금 추운 5월이다.

여주로 터전을 옮긴 지 벌써 7년째이다.

서울에서 태어나 63년을 살았고 땅을 밟고 살며 늙어 가자고 골라서 들어온 시골마을 여주.

학창시절 답사왔던 잊지 못한 여강 변에 있는 신록사와 서울과 멀지 않다는 이유로 아무 연고 없는 여주에 와서 그림에서나 본 적 있는 정원이 있는 집을 짓고 희망차게 새로운 고향집에 온 것처럼 생각하며 기뻐했다. 결혼하고 거의 40여 년을 아파트에서만 살던 우리 부부는 전원생활 3년 만에 꿈과 현실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 텃밭은 커녕 겨우 마당에 풀 뽑기도 바빴고 하얗던 얼굴은 새까매져서 어찌다 서울 친구들을 만나면 여주댁이 서울구경 왔다고 놀림을 받았다.

서둘러 그 집을 처분하고 여강 건너편 작은 동네 아파트로 이사를 했다.

서울에는 집값이 너무 올라서 다시 갈 수도 없고 공기 맑고 조용한 여주는 노후를 보내기엔 좋을 거 같아서 고향처럼 생각하고 그냥 살기로 했다.

집 앞에는 여주시립도서관이 있었다.

사실 전원생활 한답시고 점동면에 살면서 일하기 싫으

면 찾아가던 곳이 도서관이었다. 서울에서도 안 가던 도서관을 더위를 피해가거나, 풀 뽑기도 귀찮을 때 찾아가는 곳이 되었다.

그래서 이사도 걸어 다니기 편하게 여주시립도서관 앞으로 갔다.

도서관 앞에는 맑고 넓은 시원한 여강(남한강)이 흐른다. 햇빛에 반사되어 반짝이는 강물은 매일 봐도 질리지 않았다. 사시사철 들꽃이 피어있는 도서관 주변을 걷다 보면 나이도 있고 나도 모르게 시를 쓴다.

여주로 온 지 1년 후 여주시립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그림책을 읽어주는 책 할머니를 하다가 본격적으로 은빛독서도우미 공부를 하여 각 마을의 노인정에 설치되어있는 작은 도서관에 가서 어르신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그림책도 읽어드리고 색종이로 꽃도 접고 천사도 만들고 그림책 속 캐릭터 양말인형도 만들면서 그림책과 더 가까워졌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니 도서관을 드나드는 일은 나의 일상이 되었다.

여강이 내려다 보이는 2층 어린이실에서 그림책과 동화책을 보며 책 속 주인공이 되어보기도 한다. 그동안 그림책과 동화책은 아이들만 읽는 책인 줄 알았는데 누구나 다 읽을 수 있고, 읽으면 감동을 받는 동화책과 그림책과 사랑에 빠졌다. 그림책 속에는 우리가 살아가며 배울 수 있는 모든 이야기들이 다 들어 있고 한 권 한 권 읽을 때마다 감동이 오고 매력에 푹 빠져든다.

이 마을 저 마을 그림책을 읽어드리러 다니다 보니 대부분 화투놀이로 시간을 보내셨던 어르신들도 그림책을 읽으면서 책 속 주인공이 당신들 모습이라며 좋아들 하셨다.

책 읽기를 좋아하는 나는 지금도 책으로 마음의 안정을 찾는다.

젊은 시절 고집스런 생각 때문에 우울해져서 병원 다니며 약도 먹어 보았지만 별 차도가 없었다. 그런데 동화책을 읽으면서 내 마음도 밝아지고 따뜻해지면서 이제 동화 속 주인공처럼 살고 있다.

내 나이 70, 올해는 가슴 떨리는 새로운 삶으로 다시 태어나게 될 거 같다.

토닥토닥 작은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인형 만들기도 가르쳐주고 동백꽃 뜨개질도 가르쳐 주면서 자원활동을 하기로 했다. 그리고 내가 살았던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기로 했다.

요즈음엔 토닥토닥에서 하모니카를 배우면서 우리가 직접 기획하는 북콘서트도 준비하고 있다.

매일 매일 그림책 한 권씩 읽으며 나의 삶에서 지금이 제일 젊은날 인 것처럼 행복한 나날을 보낸다. 내일도 또 내일도 책을 읽으며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아갈 거다. 요즘엔 남북관계가 좋아지면서 고구려의 옛땅을 밟아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소설 '주몽'을 읽고 있다.

비오는 날 도서관 가는 길 (안복란)

강물위로 방울방울 비가 내린다.

내발자국 소리에 자박자박 음율이 퍼지면 숨죽이고 걷

두루 누림상

도서관에서 찾은 청춘

- 여주지역 어르신들

도서관에 얽힌 이야기 (고교숙)

아주 오래전 얘기를 적어 봅니다.



는다.
길가 움푹 패여 고인 물위로 빗줄기 끝에 달려 내려온
방울들이 세상 구경 나신다.
보도블럭 길을 벗어나 가지런한 나무 계단을 오른다.
잘 다져진 진흙 오솔길 옆 떡갈나무 넓은 잎 위에서 구
슬들이 유희를 한다.
억새풀 긴 줄기를 타고 미끄럼 타는 작은 빗방울이 재
밋게 웃는다.
나도 따라 빗물되어 웃어 본다.
도서관 뒤 작은 동산은 사계를 수채화로 그려주어 가
끔은 내가 찾던 도서 목록을 참나무 오솔길 꿈의 동산
이 바꾸어 준다.
홀라당 옷을 벗고 풀숲에 숨어 있는 도토리 주워 손바
닥에 올려놓고 후후 불어 티끌 닦아 주고 도토리 모자
도 몇 개 주어 본다.
도서관 뒤 작은 오솔길이 행복을 준다.

내 삶이 끝이 아니었다 (이연섭)

70이 넘은 지금 생각해 본다.
5년 전 이른 봄, 내 삶에 변화가 봄과 함께 나를 찾아
왔다.
사는 게 지루하고 무력하고 쓸모없이 늙어가는 나날들
속에서 어느 날 예상치 않았던 일이 생겼다. ‘도서관에
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일을 하게 되다니...’
도서관에 갔다.
처음 가 본 도서관. 정말 신비로운 세상이었다.
그렇게 크고 많은 책들과 좋은 환경에 놀랐고 또 놀라
웠다. 그런 곳에서 내 새로운 노년을 시작했다.
날마다 새롭고 신기했다.
난 게으르고 소심해서 움직이는 것보다 조용히 앉아있
는 것을 좋아하는데 나에게 꼭 맞는 일자리가 구해졌다.
교육받고 그것을 실습하면서 어려서 엄마에게 했던 말
이 생각난다.
“난 학교나 다니면 좋겠어.” 했더니 “조그만 계집애가
못하는 소리가 없어” 하면서 야단을 맞았다.
그러던 나에게 이렇게 공부를 하고 책을 읽어 주란다.
교육을 받으며 창밖을 내다보던 나는 살며시 입가에
미소를 지었다.
노오란 산수유 꽃이 봄비에 젖어 물방울을 힘껏 물고
있었다.
그렇게 여름이 지나가고 노란꽃에서 빨갱게 산수유가
익어갈 무렵 아이들과 책놀이를 시작했다. 무엇인가 받
아들일 준비가 된 빛나는 아이들의 눈망울...
하나를 주면 열을 만들 수 있는 머리로 나에게 즐거움
과 보람까지 준다.
그런 아이들과 나는 늙어가는 게 아니라 젊어지는 거
같다. 난 또 새로운 공부를 시작한다.
창 너머로 보이는 도서관의 사계절은 정말 아름답다.
봄은 봄이다.
아름답다. 강가에 버드나무에서 푸른빛으로 시작한다.
노란 개나리에도 봄은 화려하게 장식하고 뱃나무가로
수, 강 건너 영월루를 붉게 물들이는 진달래 연녹색의
나무들...

나도 봄을 노래한다고 따라오는 아카시아 꽃향기, 녹음
질은 나무와 강바람에 시원한 여름, 가을을 강물까지
물들이는 단풍, 뒤따라오는 소나무에 내려앉은 소담한
눈까지 무엇이 더 좋다고 할 수 없는 도서관의 사계를
나는 사랑한다.

그 곳에서 예쁜 아이들과 사시사철 놀 수 있는 나는
행복한 늙은이다.

야학에서 배운 시를 발매면서 외워본다

황채단(경기도 여주시 능서면 매화리 경로당에서 그림책 읽
는 어르신)

오늘 『오빠 생각』 그림책을 읽으니께 나 어릴 적 야학당
길 때 생각이 나는구면.

그 그림책 속에 학생복 입은 오빠같이 생긴 청년들이
방학 때 우리들 야학에 와서 글도 가르쳐 주고 책도 읽
어주고 시 외우기 시험도 하고 그랬지.

난 전라도 남쪽에서 태어나서 여자들이 배워 뿔하나고
우리 아버지는 학교도 안보냈어.

할아버지도 맨날 하는 얘기가 “학교 다니면 여자들은
세상 물정아니까 시집가서 못살어. 여자는 배우면 못
써.” 하셨지.

그래도 나는 어디 맘이 그런가.

나도 친구들처럼 학교에 다니고 싶지.

그런데 방학 때 공부하고 고향에 온 청년들이 사랑방
에 모여서 소설도 읽어주고 글도 가르쳐 주니께 얼마나
좋아. 지금 생각하면 다들 잘생기고 이뻐서.

글을 얼마나 열심히 배웠는지 집에 가서 공책이 없으니
께 땅바닥에 발매면서 글자 연습하고 그랬지.

그리고 나도 언제쯤 저렇게 책을 읽을까 생각했지.

밤마다 읽어주는 책도 참 재미있었어.

아직도 기억에 남는 그 때 시외우기를 해서 누가 더 많
이 외우나 시험하고 그랬어.

나는 그때 외웠던 시를 시방도 발매면서 외워.

시를 외우다 보면 일이 하나도 안 힘들어.

내가 여주로 시집온 지 70년이 다 되가는...

난 치매 걸려도 시는 안 잊어버릴거여.

두루 함께상

내가 꿈꾸는 도서관

- 최인영(경기 하남 신장초등학교 2학년 2반)

우리가족은 주말마다 도서관에 간다. 나도 동생도
아빠도 도서관을 좋아하지만 엄마는 세상에서
우리집 다음으로 도서관이 좋다고 한다.

나도 책을 좋아하기 때문에 도서관이 좋지만 다른 재
미있는 곳이 너무 많아서 엄마처럼 우리집 다음으로

좋다고는 말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재미
있는 것이 도서관에 있으면 어떨까 상상을 해보았다.
내가 꿈꾸는 도서관은 아이들을 위한 어린이도서관이
다. 아주 어린 아기들도 편하게 도서관에 놀러올 수 있
다. 그러려면 방이 여러 개 있고 소리를 완전히 막아주
는 벽도 있어야 된다.

방안에는 여러 가지 놀이기구와 장난감들이 있어서 어
린 아이들이 책을 보다가 놀다가 할 수 있었으면 좋겠
다. 애완견과 함께 책을 볼 수 있는 방도 있고 음식을
먹으면서 책을 볼 수 있는 방도 만들면 좋겠다. 또 밤
이 되어도 닫지 않고 책을 볼 수 있는 방도 있어서 늦
게 온 사람은 거기에서 늦게까지 책을 읽을 수 있으면
 좋겠다.

도서관에는 로봇들이 있는 로봇 기지도 있다. 도서관에
 처음 오면 회원 등록을 하고 회원이 되면 올 때마다 리
모컨을 나눠주는데 그 리모컨으로 책도 찾을 수 있고
반납과 대출, 그리고 연체가 되었는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다.

연체가 되었으면 리모컨으로 다시 빌릴 수도 있고 없는
책을 예약할 수도 있다. 간단한 음식도 주문할 수 있는
데 리모컨을 누르면 로봇이 와서 직접 음식을 가져다
 준다. 그럼 나는 주스를 시키고 엄마는 커피를 시킬 것
 이다. 로봇과 친해져서 친구가 되면 로봇이 알아서 내
가 좋아하는 음식과 책들을 추천해 준다. 그래서 더욱
편하게 책을 읽고 주문도 할 수 있다.

지금 도서관에서 책을 검색해서 찾는 것도 재밌기는
 하지만 내가 이미 많은 책을 봐서 안 본 책들 중에 찾
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럴 방법은 없다. 로봇은 똑
 똑하니깐 전부 기억했다가 내가 좋아하고 안 본 책을
 골라서 찾아줄 것이다.

새로 나온 책은 서점에는 있는데 도서관에는 거의 없
어서 어떤 날에는 도서관에 갔다가 서점까지 가느라고
 힘들었다. 도서관에 없는 책을 신청하면 다음에 가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것도 로봇으로 해도 되고 사람이 해도 된다. 아니면
 읽고 싶은데 없는 책을 집에 있는 사람이 가져와서 서
로 바꿔보고 아예 주거나 기부도 하는 날을 만들어도
 좋다. 벼룩시장처럼 날짜를 정해서 정해진 날에 사람들
이 모여서 책을 바꾸거나 기부하는 것이다.

내가 꿈꾸는 재미있고 편리한 어린이 도서관이 꼭 만
들어지면 좋겠다. 혹시 만들어지지 않으면 내가 커서
 돈을 아주 많이 벌어서 만들어야겠다.

그럼 가족들도 부르고 친구들도 초대하고 내 아기들도
 데리고 와서 책도 많이 보고 재미있게 놀 것이다. 그러
면 사람들이 모두 “우와~ 이걸 너가 만든거야? 이걸 내
가 꿈꾸는 도서관이었어!”라고 말할 것 같다. 생각만 해
도 기분이 좋고 가슴이 두근거린다.

내가 이 꿈을 이루면 도서관을 좋아하는 엄마를 제일
 먼저 데리고 가서 보여주면서 말할 것이다.

“엄마! 이제는 도서관 다음으로 우리집이 좋지?”

내가 권하는 이야기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청소년 블로그기자단 청소년기자

이제는 우리 자신을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할 때

나의 첫 젠더 수업/ 김고연주 지음, 창비, 2017

이 책은 색다른 표지와 저자명에 눈길이 가서 독자들의 호기심을 유발하기에 충분하다. 책의 표지에는 남자와 여자 캐릭터가 각기 다른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으며 보편적인 편견을 뛰어 넘은 장신구나 옷차림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게다가 저자 이름은 총 네 자이다. '김고연주' 작가는 양성 쓰기 문화 운동에 동참하는 의미로 양성을 따르고 있다. 이렇게 책의 표지와 저자명의 의미를 알면 책의 내용이 자연스럽게 짐작된다. 이 책은 말 그대로 "젠더"에 얽힌 사회적 이야기와 변천사를 다루며 앞으로 청소년들이 어떠한 인식을 가져야 하는지 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성" 또는 "성별"이라는 단어는 아마 모두에게 익숙할 것이다. 하지만 왜 이 책의 제목에는 "젠더"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을까? "젠더"는 단순히 번역된 영어 단어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다. 이 책은 일반적 의미의 "성별"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정의되거나 만들어진 "성"이라는 의미를 다루기 때문에 이 같은 의미를 전달 할 수 있는 단어인 "젠더"를 사용하였다.

우리 사회는 예부터 여성과 남성을 분리하고 구분하려 했던 "이분법적" 사고를 완전히 버리지 못하였다. 이로 인해 우리는 자연스럽게 여자와 남자에게 걸맞은 성 역할이 존재하고, 이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생각을 하곤 했다. 결국 우리는 성에 따른 역할의 차이, 이른바 "젠더"를 학습하게 된 것이다. 이 책은 우리가 그동안 사회적 편견과 분위기로 형성된 프레임에 쫓겨 답답함을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하게 만든다.

물론 "젠더"라는 단어는 청소년들에게 생소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책은 청소년들의 눈높이에서 이해하기 쉬운 사례와 실험으로 명쾌하게 설명해주고 있다. 성차별이나 젠더 문제를 다루는 책은 다양 하게 나와 있지만 이 책은 청소년이 젠더문제를 고려해보기 위해 읽어 볼 만한 입문서라는 점에서 특별하다. 이 책을 통해 청소년들이 남녀에 관한 오해와 궁금증을 풀 만한 기회를 가진다면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진정한 "나다움"을 찾아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남성성과 여성성이 결코 본질적이거나 타고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것, 그것이 멋진 남성, 멋진 여성으로서 자기만의 정체성을 만들어 가는 출발점입니다."

- 나의 첫 젠더 수업 中

안혜원 (저동고등학교 2학년)

따뜻한 말, 차가운 말

언어의 온도/ 이기주 지음, 말글터, 2016

우리들의 삶은 사람들과의 소통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속담 중에 '말 한마디가 천 냥 빚을 갚는다'라는 말이 있다. 이처럼 언어는 누군가의 하루를 상쾌하게 만들 수도 있고 암울하게 만들 수도 있다.

언어는 그 나름대로 차가움 혹은 따뜻함과 같은 온도를 가지고 있다. 애정이 있고 온기 있는 말은 누군가를 슬픔이나 절망에서 구해주는 따스한 손길과 같은 역할을 한다. 반대로 온기 없는 차가운 말은 고드름이 되어 누군가의 마음속에 깊게 박혀 그 사람을 열게 해 버릴 수도 있다. 심하면 상대의 마음을 푹푹 얼려 되돌릴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말의 온도는 몇 도일까? 무심코 뱉은 말이 상처를 주지는 않았을까? 혹은 우리가 한 말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어 준 적도 있었을까?

이기주 작가의 「언어의 온도」는 수필을 배경으로, 일상 생활 속 언어의 사용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에 대하여 설명해 준다. 작가의 말 하나하나가 따뜻한 온도로 우리를 녹여주는 듯하다. 가벼워 보이지만 진중한 주제로 우리들의 일상 속으로 스며들며 깊은 생각에 빠지게 해준다.

'상대가 싫어하는 걸 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큰 사랑이 아닐까.'

- 언어의 온도 中

최준희 (김천고등학교 2학년)

기사명 : 안산에서 문화를 만나다

"2018 안산국제거리극축제(5. 5.~5. 7)"가 지난 5월 7일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거리극 축제는 올해로 13년째 안산의 유명 축제로 자리매김 해 왔다. 올해 열린 거리극 축제는 안산 시민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역 사람들도 많이 찾아와 약 73만 명의 관람객 수를 기록했다. 타 지역보다 외국인 노동자와 거주민들의 수가 많다는 사실을 긍정적으로 이용해 매년 10개국 이상의 공연 팀과 예술적으로 수준이 높으면서도 대중성을 겸비한 많은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안산에서 가장 크게 열리는 행사 중 하나인 거리극 축제에 대하여 소개한다. 국제거리극축제에서는 무엇보다 다양한 국적의 공연 팀들의 예술 공연을 볼 수 있다. 곡예, 비보잉, 디제잉, 미술 등 자칫하면 이해하기 어려워 보일 수 있는 소재



들을 시각적, 청각적으로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풀어낸 작품들이 많다. 거리극 축제의 가장 큰 특징은 관람객들이 특별한 좌석 없이 광장 바닥에 앉아 감상할 수 있다는 점이다. 무대가 관람석과 가까이 있어 관중들이 공연에 더 집중하고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축제는 밤에도 볼거리가 많다. 낮에는 관객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재미있는 공연들이 많다면, 밤에는 비교적 깊이 있는 해석이 필요한 현대작품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다. 공연자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로봇이나 거대한 풍선이 될 수도 있다. 특히 올해 거리극 축제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작품은 폐막식 공연이었던 <고갱의 거북이>이다. 약 9미터 높이의 세트에서 6명의 예술가들이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고 여러 개의 그림이 모이면 또 하나의 작품이 새롭게 탄생한다. 이러한 예술 공연들도 인기가 많지만, 거리극 축제의 꽃이라고 불리는 일명 불꽃놀이, 정확한 작품명으로는 <예술불꽃 화랑>을 보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 축제의 폐막 불꽃은 해를 거듭하며 점점 화려해지고, 주위의 조형물들을 잘 활용하며 예술적인 가치가 높아진다.

"안산국제거리극축제"는 가족, 친구, 연인들이 재밌는 볼거리와 작품을 감상하며 감동적인 메시지를 공유하기에 좋은 축제이다. 내년 어린이날에는 누구나 무료로 즐길 수 있는 축제에 참여해 보기를 추천한다.

송해나 (양지중학교 1학년)

새내기 사서교사 분투기

- 류연주 (경기 윤슬초등학교 사서교사)

2018년 신규교사 시험을 보고 초등학교 사서교사로 발령받은 지 3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정식 사서교사로 발령받기 전에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긴 하였지만 고등학교에서의 경력이라 초등학교에서의 사서교사로서의 삶은 전혀 낯선 환경이었습니다.

작아진 아이들의 체구만큼 아이들의 언어나 생각도 고등학생들보다 많이 작아져 있었습니다. 처음 한 달은 낯선 환경에 정신이 없었지만 1, 2학년 아이들의 귀여움과 사랑스러움에 웃을 수 있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초등교사로서 경력은 짧지만 초등학교 사서교사의 매력과 힘든 점, 그리고 극복 할 수 있는 힘을 적어보고자 합니다.

초등 사서교사로서의 매력은 다양한 독서수업을 진행해 볼 수 있고, 아이들의 참여가 높다는 것입니다. 작년 시험응시를 하면서 초등을 지원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초등학생에게 독서교육이 더 중요하고, 사서교사로서 독서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을 것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생각대로 초등에서는 사서교사가 수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수업이 주어지기도 하고 원하면 수업을 만들어 아이들에게 독서교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사서교사의 역할에 따라 다양한 수업을 해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도서관은 학생들의 참여도가 매우 높습니다. 도서 대출수도 중·고등과는 다르게 높아 매 시간마다 아이들이 가득한 도서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도서관 행사를 열면 학부모나 학생들의 참여가 높아서 참여유도를 하거나 별도의 홍보가 없어도 늘 북적북적해서 행사 후 힘은 들지만 보람과 만족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길 수 있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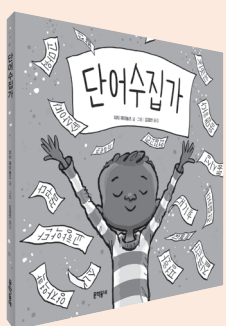
이런 초등교사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수업을 위한 연구가 계속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른 선생님들처럼 교과서나 지도서가 따로 있지 않기 때문에 수업구성부터 방법, 수업에 필요한 교재까지 다 고민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고민도 되고 스트레스도 받았지만, 같이 임용에 합격한 동기 선생님들과 모여 스터디도 하고 지역 선배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아 수업을 해나가면서 저 스스로도 발전하고 성장하는 하루를 살고 있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에서는 학부모의 도움 없이는 도서관 운영이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운영해보고자 했었지만 도서관납 책 정리를 하다가 힘들어 울어버린 적도 있습니다. 지금은 학부모 명예사서가 구성되어 어머니들이 도서관정리도 도와주시고 행사진행도 함께 해주셔서 수월하게 학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와 함께 있다는 점이 아직까지는 부담되고 어렵기도 하지만 저와 도서관을 위해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기에 감사한 마음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임용준비를 하면서 어떤 교사가 되고 싶은가? 라는 면접질문에 사랑받는 교사가 되고 싶다고 준비한 것 같습니다. 학생, 학부모 그리고 동료 교사에게 사랑받는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제가 먼저 다가가고 노력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는 학교에서 사랑받는 교사인가? 라는 질문에 아직은 “예”라고 대답하진 못하지만 1,2년 후 “예”라는 대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학생, 학부모 그리고 동료교사를 사랑하는 지금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초등학교 도서관은 학생들의 참여도가 매우 높아 매 시간마다 아이들이 가득한 도서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도서관 행사를 열면 학부모나 학생들의 참여가 높아서 참여유도를 하거나 별도의 홍보가 없어도 늘 북적북적해서 행사 후 힘은 들지만 보람과 만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이들 마음을 그려 내는 작가, 피터 레이놀즈의 그림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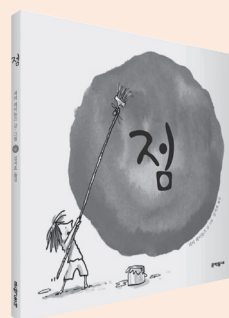


단어수집가

피터 레이놀즈 글 · 그림
김경연 옮김

서로 이어지고 부딪치며 새로이 생겨나는 말의 힘
우리 주위에 언제나 존재하는 바로 그런 마법

“단어는 결코 단어로만 남아 있지 않고 다른 단어를 만나서 구절이 되며 길고도 아름다운 문장이 된다. 그것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힘이 나는 그림책이다.”
_김지은(어린이문학평론가)



짐

피터 레이놀즈 글 · 그림
김지효 옮김

아무것도 그리지 못하고 텅 빈 도화지를
내려다보고만 있던 베틀에게 일어난 기적 같은 일!

책따세(책으로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교사들) 추천도서 | 열린어린이 선정 좋은 어린이책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추천도서 | 책읽는교육사회실천협의회 선정도서 | 3학년 도덕 교과서 수록

학도넷 소식

2018년 3월부터 8월까지 학도넷 활동소식입니다.

학도넷 행사

- 2018년 3월 15일 학도넷 소식지 봄호 발행(총권 45호)
- 2018년 4월 6일 2018 학도넷 사례공모 '도서관 이용자 시대!!' 도서관 이용한 경험 공모
- 2018년 5월 23일 2018 학도넷 '도서관이용자 이야기대회' 공모 선정작 발표
- 2018년 5월 26일 학도넷 창립 14주년 기념 심포지움 및 정기총회
- 2018년 7월 서울시교육청 '학교와 마을이 만나는 교육공동체(SnS) 협력활동', '운동주와 만나다' -운동주 인물탐구와 시놀이
- 2018년 8월 8~10일 학도넷 여름사서연수 '도서관에서 보드게임으로 독서교육을 재미있고 즐겁게 해보자'
- 2018년 8월 11~16일 (5박 6일) 학도넷 발해역사탐방, 항일유적지 탐방

신입회원 (2018년 3월~2018년 8월)

- 정회원 : 박은숙 허지연 하은경 안희정 장부자 성양기 박선미 임지은 김은승 최임영 이재선 양은주 정미순 서미혜
- 준회원 : 강정미
- 웹회원 : 강성이 김은영 김윤경 김민희 이나영 배지은 김명진 차정녀

회비 및 후원내역 (2018년 3월~2018년 8월)

정회원 회비

- 매월 5천원 : 강복숙 강정미 광정은 구미숙 권도경 권시에 길미숙 길영희 김경숙(보령) 김누리 김대경 김동현 김리라 김선영 김소원 김심환 김영신 김은승 김은영 김은하 김정숙 김정윤 김정혜 김하나 남규조 마민희 문수지 문원림 박미영 박선미 박은하 박준섭 백경숙 백연주 서미혜 서정원 선보배 성주영 성미경 송경영 송명원 송숙영 송혜영 신은미 신정임 신정화 신형란 안경애 안정원 안희정 양은주 유영숙 유정원 윤남미 윤소영 이금화 이규선 이미순 이선화 이영선 이유정 이은혜 이주영 이진옥 이현 이현애 이혜진 임경순 임지은 장부자 정미순 정수연 정영희 정명희 조영순 주상태 차진미 채재현 최민영 하은경 한은미 허지은 허지연
- 매월 1만원 : 강애라 강지영 권향미 김경숙 김은영 김순홍 김승주 김신희 김옥위 김중성 김진희 김진희(관악) 김효숙 라순희 류주형 문예원글로피아 박 샘 박영옥 박정해 변영이 백화현 송추향 안미정 오현애 오희애 유은실 이경자 이규향 이기영 이덕주 이문숙 이미경 이소연 이영주 이재선 이찬미 정수현 정영희 정지영 정진수 조길량 조선희 조은영 조의래 최진영 한명숙 허경림 황봉희
- 매월 2만원 : 김순정, 박은숙
- 매월 3만원 : 도서출판 북극곰, 고래가숨쉬는도서관
- 정기후원 : 문학동네(매월 20만)

준회원 회비

- 매월 : 김미령(3천) 김민형(2천) 김송요(2천) 김송현(2천) 박영혜(3천) 박인재(3천) 박정미(3천) 박종숙(3천) 성양기(3천) 손은상(2천) 손은서(2천) 손은재(2천) 송권형(1천) 신수인(3천) 염효경(3천) 이영희(3천) 이인문(3천) 이재경(3천) 이재희(2천) 장버리(3천) 장한솔(2천) 조성우(3천) 최선옥(3천) 최유미(3천) 최창익(3천)
- 인세후원 : 안재희(코스모스스쿨 인세 22만)
- 2018 심포지움 및 총회후원 : 창비 200만(책읽어주는여자 후원)/ 이용남 교수님 10만 / 전국학교도서관담당교사모임 50만/ 김진희(관악) 5만
- 여름연수 간식후원 : 백화현 선생님 10만

새로 나온 책 보내주신 곳

신호등을 작동시키는 내 맘대로 코딩, 라면 기계로 살펴보는 차근 차근 명령어(그레이트북스)/ 꽃밥(나한기획)/ 세계화, 무엇이 문제일까?(동아엠앤비)/ 보고 듣고 말하는 호락호락 한국어5(몽치)/ 놀이터는 내 거야(불광)/ 핑스(비룡소)/ 청소년을 위한 꿈꾸는 다락방

(생각학교)/ 세븐 블라인드, 손으로 보는 아이 카밀, 아이스크림 걸음(소원나무)/ 날마다 한일전(우리교육)/ 자유학기제 토론수업 찬성 vs 반대(유레카엠앤비)/ 동생이 생긴 너에게, 나의 첫 반려동물 비밀 물고기, 하늘을 나는 사자(천개의바람)/ 똥 학교는 싫어요, 긴급뉴스 소방관이 사라졌다(초록개구리)/ 물은 예쁘다, 매머드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인류의 역사(토토북)/ 제주도에 간 전설의 고양이 탐정(따라새)/ 미래를 위한 따뜻한 실천 업사이클링, 십대가 알아야할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의 미래(팜파스)/ 나의 다양한 돼지엄마(그레이트)/ 인간은 왜 폭력을 행사하는가?(철수와 영희)/ 이임하의 여성사 특강(철수와 영희)/ 환동이(북극곰)/ 우리는 넷 쿠키는 셋, 쓱쓱, 아무것도 아닌 단추(북극곰)/ 미술시간 마술시간(한솔수북)/ 방정환 말꽃모음(단비)/ 꿈을 가져도 되오?(단비)/ 나의 동두천(낯은산)/ 엑시트(비룡소)/ 10대와 통하는 음식이야기(철수와 영희)/ 바로 너야(글로벌)/ 왓투(북극곰)/ 지각대장 샘(북극곰)/ 선인장은 어떻게 식물원에 왔을까?(철수와 영희)/ 10대와 통하는 자본주의 이야기(철수와 영희)/ 나(한솔수북)/ 오! 나의 달님(북극곰)/ 바다와 하늘이 만나다(북극곰)/ 귀신안녕(글로벌)/ 우리집에 용이 나타났어요(북극곰)

소식지 보내주신 곳

맨발동무(어린이도서관 맨발동무)/ 책&(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도서관문화(한국도서관협회)/ 학부모신문(참교육학부모회)/ 놀이하는사람들(사)놀이하는사람들/ 고래가 숨 쉬는 도서관 여름호(고래가숨쉬는도서관)/ 개똥이네 놀이터(보리)/ 어린이문화연대/ 서울교육(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 부산 보수동책방골목어린이도서관 소식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월간 개똥이네놀이터, 개똥이네집

***보내주신 소중한 자료들은 학교도서관활성화를 위해 귀하게 쓰겠습니다. 지속적인 광고와 도서후원을 기다립니다.**

2018 학도넷 '도서관이용자 이야기대회' 공모 선정작 발표했습니다.

- 두루 누림상 (책읽어주는 의자와 상징액자)
 - 나의 말하기 선생님, 도서관 사서님 / 김수진(대구대학교 문헌정보학과 3학년)
 - 학교도서관의 파수꾼 / 송명원(경북 봉화 소천초등학교 교사)
 - 새벽 3시가 행복했던 그 때 / 함성희(경북 포항시민)
 - 문화콘텐츠 도서관을 만들기 위한 작은 밀알 뿌리기 / 권미란(강남구립 정다운도서관 자원활동가)
 - 도서관에서 찾은 청춘 / 고교수, 이정혜, 안복란, 황채단(여주지역 어르신들)

■ 두루 함께상 (책20권과 상징액자)

- 참 행복을 가르쳐 준 도서관 / 전재학(인천 계양고등학교 교사)
- 나의 우연, 운영 도서관 / 조선영(계명대학교 문헌정보학과 3학년)
- 학교 도서관과 친구 되기 / 남유진(경기부천 소사초등학교 책사랑 어머니)
- 도서관은 나에게 / 정수현(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 내가 꿈꾸는 도서관 / 최인영(경기 하남 신장초등학교 2학년2반)

■ 고루 나눔상(책10권과 상징액자)

- 지혜의 책물터에서 노을자~ / 정영희(서울 고척초등학교 사서)
- 도서관에서 만난 뜻밖의 위로 / 이주연(경기 동두천시 꿈나무정보도서관 사서)
- 책이 있다면 그곳이 도서관_나의 독서 청구기호 / 이수라(경기 양주 덕도초등학교 사서)
- 꿈의 도서관 / 이 영(덕성여자대학교 영어영문학과 3학년)
- 인생의 첫 경험, 학교도서관 / 오선경(대구협성경복중학교 사서)
- 이용자로서 그리고 사서로서의 도서관의 의미 / 남현진(경동대학교 온사람교양교육대학 직원)
- 조용하지만 활기찬 그 곳에서 / 조상현(공주대학교 문헌정보교육과)

학도넷 창립 14주년 기념 심포지움 및 정기총회했습니다.

- 때 : 2018년 5월 26일 토요일 오후 1시~오후 5시 30분
- 곳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강당
- 주최 : 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
- 후원 : 창비

시간	내용
1:00~1:40	책공연 (아날로그 슬라이드로 즐기는 빛그림) '사땀'과 함께 플레이스톱 : 도서관은 살아있다
1:40~2:30	도서관 인생의 길 : 사회인식의 벽을 허물고자
2:30~3:00	건강한 시민! 도서관 이용자
3:00~3:30	도서관이용자 이야기공모 시상식
3:30~4:30	사례나누기
4:30~5:00	서로 묻고 답하기
5:00~5:30	학도넷 정기총회

학도넷 총회에 책 보내주신 곳

개똥이네 놀이터 2018년 4월호 100권(보리)/ 민주시민교육 메모지, 안전지도 스티커 파일폴더 50개(초록개구리)/ 책그림 엽서, 활동 스티커, 부채 50개(그레이트북스)/ 마음이 풍풍풍 미니북(천개의바람)/ 도서관 브로셔, 파일폴더 120개(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서울시교육청 '학교와 마을이 만나는 교육공동체(SnS) 협력활동' 7월 진행했습니다.

- 운동주와 만나다 : 운동주 인물탐구와 시 놀이(강사 박영옥)
- 서울 신계초등학교 3~6학년(13학급), 1학급당 3시간, 총 39시간

2018 학도넷 여름사서연수했습니다.

- <도서관에서 보드게임으로 독서교육을 재미있고 즐겁게 해보자>
- 강사 : <도서관에서 보드게임> 공동집필진, 경기도도서관총서, 경기도사이버도서관, 2017.
- 주최 : 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
- 때 : 2018년 8월 8일 (수)~10일 (금) 10시~17시
- 곳 : 서울 송곡여고도서관/ 서울사대부고 도서관

<학도넷 여름연수 후원해 주신 곳>

세계절(북딩고보드게임카드, 세계절통신), 몽치(호락호락한국사 한국사연표), 그레이트북스(파일폴더, 수첩, 부채), 초록개구리(메모패드 수첩), 보리 개똥이네놀이터

2018 학도넷 발해역사탐방, 항일유적지탐방 다녀왔습니다.

- 2018년 8월 11일~16일(5박 6일)
- 학생, 교사, 사서, 학부모 30명이 함께한 역사탐방과 해외동포들과의 교류의 장이었습니다.

인천공항 출발→ 흑룡강성 목단강 도착→ 해림 김좌진기념관, 생가 방문→ 경박호 탐사→ 발해유적지탐사(상경용천부, 발해궁터, 발해 박물관 등 발해유적)→ 흑룡강성 념안시 념안조선족중학교와 소학교 학생들과 독서활동 교류→ 수분하로 이동→ 중국출국, 러시아 입국철차→ 우수리스크로 이동→ 고려인문화센터, 이상설유허비, 최재형생가, 거북공원, 발해옛성터(술빈부), 고려인 마을(우정마을, 고향마을) 한글학교 등 고려인들과 교류→ 시베리아횡단열차(우르스크역출발 블라디보스톡까지)→ 독수리전망대, 신한촌, 혁명광장, 아르세니예프 박물관, 아르바트 거리 등 블라디보스톡 시내 book 도서관, 서점방문→ 블라디보스톡공항 귀국→ 인천공항에서 해산

순수 시민단체인 학도넷의 재정은 회원님들의 회비와 후원금으로 이루어집니다. 후원금과 회비는 학도넷의 재정자립과 안정된 활동을 보장하는 가장 큰 힘입니다.
국민은행 356201-04-173422 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학도넷)